

# 産後에 活用되는 補虛湯에 관한 文獻的 考察

沈龍燮 · 柳同烈\*

## I. 緒 論

補虛湯은 中國 明代(1571)의 李<sup>1)</sup>에 의하여 《醫學入門》에 最初로 收錄된 處方으로 産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立方되었으며 그 處方內容은 人蔘, 白朮各一錢, 當歸, 川芎, 黃耆, 陳皮各五分, 甘草三分, 薑三으로 되어 있다.

産後는 分娩으로 因하여 氣血이 極度로 虛弱해진 狀態로 食餌 및 攝生이 중요한 때로 食餌나 攝生이 약간만 정도에서 벗어나도 평생 産後病으로 고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 現代는 産業이 발달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主婦의 家事勞動이 많이 減少하고 있으나 産後攝生에 대한 觀念이 점차 稀薄해지고, 職業을 가지고 있는 主婦가 늘어나면서 産後 早期에 活動을 시작하며, 妊娠中絶手術의 增加 등의 要因으로 인하여 産後의 疾病으로 苦痛받는 女性이 減少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産後病 豫防 및 産後疾病 治療가 중요시되고 있다.

産後의 治療方法은 虛弱해진 氣血을 補充해주고 瘀血을 消散시키는 것이 特徵<sup>2)</sup>인데 補虛湯은 産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活用되어 産後疾病을 豫防하고 産後에 發生하는 各種 疾病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方劑이다.

許<sup>3)</sup>等<sup>4)</sup>은 “産後當大補氣血 宜用 補虛湯 雖有雜證以未治之”라 하여 産後에는 마땅히 大補氣血하여야 하는데 産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補虛湯의 使用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으며 臨床적으로도 産後病을 豫防하고 産後 各種疾患에 많이 活用되고 있으나 補虛湯에 관한 研究가 미흡한 狀態이다.

이에 보다 더 效率的인 臨床活用을 위한 基礎的 資料를 提示하고자 補虛湯의 起源, 補虛湯의 構成藥物 및 用量의 變化, 補虛湯의 加減方法 및 主治症에 대하여 文獻적으로 살펴본 結果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2. 本 論

### 1. 資料調査 및 研究方法

#### 1) 資料調査

韓醫學의 歷代文獻中에서 丹溪心法으로부터 最近의 蒼濟證方에 이르기까지 約 27餘種의 文獻中 補虛湯이 나오는 部分을 拔萃하여 이를 研究 對象으로 삼았다.

#### 2) 研究方法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婦人科學教室

- (1) 補虛湯의 起源을 文獻調査 整理하였다.
- (2) 補虛湯의 構成藥物 및 重量을 文獻調査 整理하였다.
- (3) 補虛湯의 加減方法을 文獻調査 整理하였다.
- (4) 補虛湯의 主治症을 文獻調査 整理하였다.

## 2. 文獻調査

### 1. 丹溪心法<sup>5)</sup>

#### 産後補虛

人蔘, 白朮各一錢, 茯苓, 當歸尾, 陳皮, 川芎各半錢, 甘草炙三分, 生薑三片 水煎服

### 2. 醫學正傳<sup>6)</sup>

丹溪曰: 産後當大補氣血爲主 雖有雜證, 以未治之

産後補虛 用蔘, 朮, 黃耆, 當歸尾, 陳皮, 川芎, 炙甘草

### 3. 醫學入門<sup>1)</sup>

#### 産後補虛

人蔘, 白朮各一錢, 當歸, 黃耆, 陳皮, 川芎各半錢, 甘草炙三分, 生薑三片 水煎服, 治 産後一切雜病 只 大補氣血爲主 如熱輕者 倍加茯苓 熱甚者 加炒黑乾薑 引藥入肝經生血 又能利 肺氣與補陰藥同意 曾誤服熱藥及熟食者 少加酒 金漸服

### 4. 金匱鉤玄<sup>7)</sup>

#### 産後補虛

人蔘, 白朮各一錢, 黃耆, 當歸尾, 陳皮, 川芎, 甘草炙各半錢, 生薑三錢, 有熱 加 生薑三錢, 茯苓一錢

### 5. 類證治裁<sup>8)</sup>

#### 産後虛羸

蔘, 朮各一錢, 陳, 芎, 草各半錢, 薑三片 如熱輕 加茯苓 熱甚 加炮薑

### 6. 醫部全錄<sup>9)</sup>

胎前 産後虛切用此加減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右挫作一貼 入薑三片 水煎服 煎服 熱輕者 倍加茯苓 如熱重加酒金 如熱甚者 加乾薑炒黑 引諸藥入肝經生血

### 7. 東醫寶鑑<sup>3)</sup>

産後 大補氣血爲先宜用 補虛湯 雖有雜證以未治之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右挫作一貼 入 薑三片 水煎服, 熱輕 倍加茯苓, 如熱重加酒金, 熱甚者 加乾薑炒黑 引諸藥入肝經生血(入門)

### 8. 濟衆新編<sup>10)</sup>

大補氣血爲主 雖有雜證以未治之 胎前無滯 産後無虛

禁發表, 禁芍藥, 然酒炒黃則無妨

(寶鑑)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薑三片, 熱輕 倍加茯苓, 熱重加酒黃金 熱甚 加乾薑炒黑 引諸藥入肝經生血

### 9. 醫宗損益<sup>4)</sup>

産後症治(丹心)産後當大補氣血急用 補虛湯 雖有雜證以未治之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薑三片 熱輕倍加茯苓, 如熱重加酒金, 熱甚加乾薑炒黑 引諸藥入肝經生血(寶鑑)

10. 證脈方藥合編<sup>11)</sup>

産後 大補氣血 雖有雜證以未治之

1) 熱輕倍加茯苓 2) 熱重加酒金 3) 熱甚加乾薑炒黑 引諸藥入肝經生血 氣虛上喘倍加人蔘一二兩 加桂 附 乾薑炒黑不計貼數 速用救之, 兼眩加 荊芥, 煩熱加 柴胡, 産後百病 隨證加減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生薑三片

11. 清囊訣<sup>12)</sup>

産後 大補氣血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生薑三片 熱輕倍加茯苓, 熱重加酒金, 熱甚加乾薑炒黑 引諸藥入肝經生血 氣虛上喘倍加人蔘一二兩 加桂 附 乾薑炒黑不計貼數 速用救之, 兼眩加荊芥, 煩熱加柴胡, 産後百病 隨證加減

12. 韓方臨床四十年<sup>13)</sup>

産後發熱 補虛湯 加柴胡一錢 水煎服한다.

後陣痛 補虛湯加 當歸補血湯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薑三 産後諸病에 大補氣血을 目的으로 우선 쓰는것

熱輕加茯苓, 熱重加酒金, 熱甚加乾薑炒黑(寶鑑)

13. 東洋醫學原理<sup>14)</sup>

産後虛勞 補虛湯 (上 116)

産後에는 마땅히 氣血을 大補할 것이니 비록 雜證이 있어도 끝으로 治療한다.

熱이 輕 茯苓을 加하고 熱이 重하면 加酒黃金을 加하고 熱이 甚하면 乾薑炒黑을 加하여 藥을 引導하여 肝經으로 들어가게 하여 血을 生하게 한다.

(活套) 氣虛하고 喘急하면 人蔘을一二兩 증가하고 肉桂 附子 乾薑炒黑을 加하여 貼數를 계산하지 않고 速用으로 救嗽한다. 眩暈을 檢했으면 荊芥를 加하고, 煩熱이 있으면 柴胡를 加하고 무릇 産後의百病에 症勢에 따라 加減함이 오로지 이藥이다.

14. 東洋醫學叢書五種<sup>15)</sup>

産後當大補氣血宜用 (補虛湯)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生薑三片 加減法: 熱輕加茯苓, 熱重加酒金, 熱甚加乾薑炒黑 引諸藥入肝經生血

15. 標準韓方婦人科學<sup>16)</sup>

産後 氣血虛弱하고 寒熱하면 補虛湯을 쓰고 産後에 涼藥은 좋지 않다.

16. 東洋醫學診療要鑑<sup>17)</sup>

産後의 氣血不足을 大補한다.

人蔘, 白朮各5.625g,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3.75g, 甘草2.625g, 生薑三片 用法) 水煎服하는데 熱이 輕하면 茯苓을倍加하고, 熱이 重하면 酒金を 加하고 熱이 甚하면 乾薑(炒黑)을 加하여 모든 藥氣를 引導하여 肝經으로 들어가게 하여 血을 生하게 한다(入門)

17. 圖設韓方診療要鑑<sup>18)</sup>

産後 元氣 虛弱하여 貧血 浮腫 眩暈 四肢痛이 있는 자

人蔘, 白朮各6g,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4.0g, 甘草3.0g, 生薑4.0g]

本方은 産後에 氣血이 虛弱하여 貧血 浮腫 眩暈 心煩 呼吸困亂 寒熱往來 및 四肢의 牽引痛 등의 症狀을 호소하는 자를 목표로 한다.

虛症으로 脈과 腹이 軟弱한 者이다.

加減法)

- 1) 熱이 약간 있는 境遇 茯苓 3.75-7.5g 加
- 2) 熱이 甚한境遇 酒黃金 3.75-7.5g 加
- 3) 熱이 대단히 甚한境遇 乾薑炒黑 3.57-7.5g 加
- 4) 元氣가 虛弱하거나 그로 인한 喘息이 있는 境遇 人蔘의 량을 倍로 높이고 乾薑 桂枝 附子 各 3.75g 加
- 5) 心煩症에는 茯苓 7.5-11.25g 加
- 6) 心臟虛弱과 小便不利가 있을 境遇 茯苓 11.25-18.75g 加
- 7) 輕微한 浮腫에는 茯苓 3.75-7.5g 加
- 8) 浮腫이 甚한 境遇에는 澤蘭 7.5-11.25g 加
- 9) 熱 또는 寒熱이 往來 하는 境遇 柴胡 3.0-5.625g 加
- 10) 眩暈에는 荊芥 3.75-5.625g 加
- 11) 四肢灼熱牽引通에는 桂枝 3.75-7.5g 加
- 12) 四肢 및 全身關節痛에는 防風 3.75g 加
- 13) 酸痛에는 薏苡仁 3.75-7.5g 加
- 14) 消化不良에는 山楂 陳皮 砂仁各 3.75g 加
- 15) 腹痛에는 芍藥 3.75-7.5g 加

18. 方證新編<sup>19)</sup>

補氣血하므로 産後의 虛勞를 治

人蔘, 白朮各6g,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4g, 甘草3g, 薑三片

加減) 1) 熱輕時加茯苓 2) 熱重時加酒金 3) 熱甚時 加乾薑炒黑 4) 氣虛上喘에는 人蔘40g으로 증량하고 肉桂 附子 乾薑炒黑을 加하여 速用한다. 5) 眩을 檢하면 荊芥를 加한다. 6) 煩熱에는 柴胡를 加한다.

19. 韓方婦人科學<sup>2)</sup>

産後 虛症을 治하는 代表방이다.

人蔘, 白朮各6g,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4g, 甘草3g, 生薑三片 水煎服 한다.

- 1) 熱輕에는 茯苓을 倍加하고, 熱重에는 酒金を 加하고 熱甚에는 乾薑 (炒黑)을 加한다.
- 2) 眩暈에는 荊芥를 加하고 煩熱에는 柴胡를 加한다.
- 3) 氣虛上喘에는 人蔘 桂枝 附子 乾薑(炒)를 加한다.

20. 東醫臨床方劑學<sup>20)</sup>

産後虛勞 當大補氣血 雖有雜證以未治之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薑三片 氣虛上喘 倍加人蔘一二兩 加桂 附 乾薑炒黑 不計貼數 速用救之, 兼眩加荊芥, 煩熱加 柴胡, 熱輕加茯苓, 熱重加酒金, 熱甚 加乾薑炒黑

21. 最新韓方臨床學<sup>21)</sup>

産後의 回復을 促進하는 方劑로서 氣血虛弱하여 생긴 病症에도 使用한다.  
人蔘, 白朮各1.5錢,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1.0錢, 甘草0.7分, 薑三片  
以上 水煎服

22. 方藥合編解說<sup>22)</sup>

産後 氣血兩虛를 大補한다. 비록 雜症이 있을지라도 기어이 이를 다스린다  
수전하여 다스린다.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1) 氣虛上喘 人蔘一二兩을 數倍加하고 肉桂 附子 乾薑(炒黑)을 加하여 計貼를 계산하지말고 速用하여 救한다. 2) 兼眩加荊芥 3) 煩熱加 柴胡 4) 凡産後百病의 증상에 加減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이 있을 뿐이다.

加減法)

- 1) 熱이 輕하면 茯苓을 倍加한다.
- 2) 熱 危重하면 酒金を 加한다.
- 3) 熱이 甚하면 乾薑(炒黑)을 加하여 引藥하여 肝入生血케 할 것이다.
- 4) 浮腫이 甚한 境遇에는 澤蘭 7.5-11.25g(二錢-三錢)을 加한다.
- 5) 心煩 또는 寒熱이 往來 하는 境遇는 柴胡 3.0-5.625g 加한다.
- 6) 四肢灼熱牽引痛에는 桂枝를 加한다.
- 7) 關節酸痛에는 薏苡仁을 加한다.
- 8) 腹痛에는 白芍藥을 加한다.
- 9) 消化不良에는 山楂 陳皮 砂仁(炒)를 加한다.

23. 東醫 새 臨床處方集<sup>23)</sup>

治産後 氣血虛弱 去人蔘 加山藥二錢 丹蔘 白茯苓一錢

治産後虛弱 補虛湯. 人蔘, 白朮各一錢半, 白茯苓, 黃耆, 當歸, 陳皮, 川芎,  
甘草各一錢, 肉桂五分 荊芥一錢, 薑三 棗二

24. 方藥指針講義草錄<sup>24)</sup>

産後當大補氣血 雖有雜證以未治之

人蔘, 白朮各1.5錢,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薑三

○ 熱輕倍加茯苓, 熱重加酒金, 熱甚 加乾薑炒黑 引諸藥入肝經生血

(活套) 氣虛上喘 倍加人蔘一二兩 加桂 附 乾薑炒黑不計貼數 速用救之 兼眩  
加荊芥, 煩熱加 柴胡, 凡産後百病 隨證加減 專在藥

25. 太韓醫學全集<sup>25)</sup>

産後虛勞

人蔘, 白朮各一錢半, 黃耆, 當歸, 陳皮, 川芎各一錢, 甘草七分, 生薑三片

熱이 輕 茯苓을 加하고 熱이 重하면 加酒黃金을 加하고 熱이 甚하면 乾薑  
炒黑 을 加하여 藥을 引導하여 肝經으로 들어가게 하여 血을 生하게 한다

26. 蒼濟證方<sup>26)</sup>

治産後當大補氣血 雖有雜證以未治之

人蔘, 白朮土炒各一錢半(5.625g) 黃耆, 當歸, 陳皮, 川芎去油各一錢(3.75g),

甘草七分(2.625g) 薑三片 熱輕者加白茯苓一錢(3.75g), 熱重者加黃金酒炒

一錢(3.75g), 熱甚者 加乾薑 炒黑三分(1.125g) 引諸藥入肝經生血 氣虛

加人蔘三錢(11.25g) 桂枝, 乾薑炒黑各一錢(3.75g), 附子炮五分 (1.875g)

### Ⅲ. 總括 및 考察

産後의 疾病은 分娩이라는 특수한 狀況으로 인하여 産母가 극도로 氣血이 허탈된 狀態에서 發生되는 것으로 他疾病을 治療하는 것과는 相異하며 産後는 食餌 및 섭생이 약간만 정도를 벗어나도 産母에게 害를 줄 수 있으므로 잘못된 藥物投與는 産母에게 더욱 커다란 害를 줄 수 있다. 따라서 産後는 옳바른 食餌 및 섭생도 중요하나 産後病의 豫防과 옳바른 治療方法 및 處方構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産後의 治療方法을 文獻적으로 살펴보면 許<sup>3)</sup>等<sup>5, 6, 9, 13, 20, 26)</sup>은 “産後當大補氣血 宜用補虛湯 雖有雜證以未治之”라 하여 産後 大補氣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李<sup>1)</sup>는 “瘀消後 方加行補 如不逐瘀 據服蔘者甘草 停滯之劑 有瘀血攻心則死”라 하였고 葉<sup>27)</sup>은 “産後氣血大虛 理宜峻補 但誤露未盡 峻補 須方壅滯--專補則瘀血益滯”라 하였으며 宋<sup>2)</sup>은 “産後治療의 特性은 氣血을 大補하고 瘀血을 消散시키는 데 있다”하였다 以上에서 産後는 大補氣血이 중요하나 만약 瘀血이 體內에 停滯하고 있는데 氣血을 大補한다면 그 副作用이 매우 甚각하며 産後 治療의 特性은 氣血을 大補하고 瘀血을 消散시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臨床의으로도 産後에는 먼저 瘀血을 消散시킨후 大補氣血함으로써 産後病을 豫防하고 乾薑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만약 産後 不注意로 인하여 이미 産後病이 發生했다 하더라도 먼저 瘀血을 消散시킨 후 氣血을 大補하여 疾病을 治療하고 있다.

産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活用되어 産後病을 豫防하고 産後 各種疾病에 使用되는 대표적인 方劑가 補虛湯이다.

補虛湯은 《醫學入門》<sup>1)</sup>에 最初로 수재된 處方으로 人蔘, 白朮各一錢, 當歸, 川芎, 黃耆, 陳皮各五分, 甘草三分, 薑三으로 構成되어 八珍湯에서 熟地黃, 芍藥, 茯苓을 去하고 黃耆, 陳皮를 加한 處方으로 構成藥物의 效能<sup>28-31)</sup>을 살펴보면 人蔘은 大補元氣, 益陰生津하고, 白朮은 補脾益氣, 和中補血하며, 當歸는 生血補心, 扶虛逐瘀하고, 川芎은 養新生血, 去風止痛하며, 黃耆는 補脾益氣, 固表止寒하고, 陳皮는 通利其氣하며, 甘草는 清熱解毒, 調和百藥하고, 薑은 行氣散寒, 解藥毒의 效能이 있어 人蔘, 白朮, 黃耆가 補氣益氣作用이 있으며 當歸, 川芎은 養血作用이 있어 處方全體의 作用이 補氣補血할 수 있으므로 産後 大補氣血의 治療法과 同一하여 産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活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方中의 人蔘과 白朮은 君藥으로 當歸 川芎 黃耆, 陳皮는 臣藥으로 甘草 生薑은 佐使藥으로 使用되어 補氣益氣作用이 補血作用보다 于先함을 알 수 있다.

補虛湯은 李<sup>1)</sup>에 의하여 《醫學入門》에 最初로 收載되었으나 朱<sup>5)</sup>의 《丹溪心法》에 起源을 두고 있다. 朱<sup>5)</sup>는 人蔘, 白朮各一錢, 茯苓, 當歸尾, 川芎, 陳皮各半錢, 甘草炙三分, 薑三을(處方名없이) 産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活用되었으나 明代의 李<sup>1)</sup>가 茯苓을 去하고 黃耆半錢을 加하여 補虛湯이라 命名한 이래 지금까지 補虛湯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李<sup>1)</sup>가 茯苓을 去하고 黃耆를 加한 理由를 살펴보면 茯苓은 “虛寒精滑 或氣虛下陷者 忌服”<sup>32)</sup>하므로 分娩으로 인하여 氣血이 虛脫된 産母에게 使用하여 氣血虛脫이 加重될 것을 우려하여 茯苓을 去하고, 補中益氣作用<sup>32, 33)</sup>이 있는 黃耆를 加한 것은 補虛湯의

補氣作用을 增加시키기 위한 것으로 思慮된다.

《醫學入門》<sup>1)</sup>의 加減法을 살펴보면 “熱輕時 加茯苓”이라 하지 않고, “熱輕時倍加茯苓”이라 하여 原方에 茯苓이 있는 것처럼 記錄되어 있고 後世의 大部分의 醫書에도 이와 同一하게 引用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醫學入門》<sup>1)</sup> 編輯過程에서 失手로 인하여 茯苓이 漏落되었는지 失手로 “倍”字가 添加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內包되어 있는지는 追後 더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思慮된다.

補虛湯의 構成藥物은 《醫學入門》<sup>1)</sup>以後 現在까지 變化가 없으며 補虛湯의 構成藥物의 用量은 《醫學入門》<sup>1)</sup>의 人蔘, 白朮各一錢, 當歸, 川芎, 黃耆, 陳皮各五分, 甘草三分, 薑三片을 韓國의 許<sup>3)</sup>가 人蔘, 白朮各一錢半, 當歸, 川芎, 黃耆, 陳皮各一錢, 甘草一分, 薑三片으로 增量한 以後 지금까지 큰 變化없이 使用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大補氣血의 目的으로는 八物湯이나 十全大補湯이 많이 使用되고 있으나 產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는 八物湯이나 十全大補湯보다 補虛湯이 많이 使用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文獻적으로 살펴보면 葉<sup>27)</sup>은 “產後 四物湯을 使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는 地黃은 性寒하고 芍藥은 酸斂한 까닭이다” 하였고 宋<sup>2)</sup>은 “產後 四物湯을 禁하는 理由는 熱地黃의 泄下作用을 염려함이다” 하였으며 許<sup>5)</sup>等<sup>5,6)</sup>은 “產後不可用芍藥 以性味酸寒能伐生發之氣故也” 하였다. 以上에서 보듯이 熱地黃과 芍藥이 產後에 不適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八物湯이나 十全大補湯이 一般的으로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많이 活用되나 產後에는 不適合하므로 產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八物湯이나 十全大補湯의 短點을 保安하여 고안된 處方이 補虛湯으로 思慮된다.

補虛湯의 加減方法의 變化 過程을 살펴보면 朱<sup>5)</sup>는 有熱時 黃金一錢을 加하고, 產後 大發熱時는 乾薑을 使用하고, 發熱輕者는 茯苓을 用하였으며, 李<sup>1)</sup>는 朱<sup>5)</sup>의 說을 따라 熱輕者倍加茯苓하고 熱甚者加乾薑炒黑하며 熱藥及熱食誤服者加酒金하여 活用하였으나, 韓國의 許<sup>3)</sup>는 熱輕者倍加茯苓, 熱甚者加乾薑炒黑한 것은 李<sup>1)</sup>와 同一하나 熱重時加酒金하여 活用了는 李<sup>1)</sup>와 相異함이 있으나 許<sup>3)</sup>以後의 諸醫書<sup>2,4,9,23,24,25)</sup>에서 許<sup>3)</sup>說을 引用하고 있다(Table1)

熱輕時 茯苓을 加하는 것은 茯苓의 三泄作用 때문<sup>15)</sup>이고, 熱重時 黃金을 加하는 것은 黃金의 性味が 苦寒하여 瀉肺火, 清大腸濕熱하기 때문<sup>11)</sup>이며, 熱甚時 乾薑炒黑을 加하는 것은 產後의 熱은 有餘한 熱이 아니고 陰虛生內熱이므로 補陰藥을 服用해야 하며 乾薑은 入肺하여 和肺氣하고 諸藥을 肝經으로 引導하여 生血하기 때문이다. <sup>1-5,9-12,14,15,17,22,24,25,26)</sup>

許<sup>3)</sup>以後 黃<sup>11)</sup>에 의하여 有熱時 以外에 氣虛上喘時倍加人蔘一二兩 加桂枝, 附子, 乾薑하고, 兼眩時 加荊芥하며, 煩熱時 加柴胡하고, 產後百病隨症加減法이 追加로 收錄된 이후 後世의 醫書에서 黃<sup>11)</sup>의 說을 引用하고 있으며 若干씩 加減法이 追加되는 곳도 있으나 黃의 加減法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Table2.)

補虛湯의 主治症에 관하여 살펴보면 朱<sup>5)</sup>等<sup>3,6,10,11,14,15,20,22,24,26)</sup>은 “產後當大補氣血 宜用 補虛湯 雖有雜證以未治之”에 使用하고, 林<sup>8)</sup>은 產後虛嗽에, 陳<sup>9)</sup>은 胎前 產後虛熱에, 李<sup>14)</sup>等<sup>19,25)</sup>는 產後虛勞에, 宋<sup>2)</sup>等<sup>1,5,7,12,16,17,18,23)</sup>은 產後虛症을 治療한다고 하였으나 모두 表現만 다를 뿐 補虛湯은 產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活用되어 產後病을 豫防하고 產後一切 雜病에 應用할 수 있는 方劑임을 알 수 있다. (Table3.4)

## IV. 結 論

補虛湯에 대하여 文獻적으로 考察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補虛湯은 醫學入門에 最初로 收載되어있으며 李가 丹溪心法에서 茯苓을 去하고 黃耆를 加하여 補虛湯이라 命名하였다.
2. 補虛湯은 産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立方되었고 人蔘, 白朮, 當歸, 川芎, 黃耆, 陳皮, 甘草, 生薑으로 構成되었으며 補血作用보다 補氣作用을 于先으로 하는 處方이다.
3. 補虛湯은 一般的으로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使用되는 八物湯이나 十全大補湯에 比하여 産後의 特性에 適合하도록 만들어진 處方이다.
4. 補虛湯은 産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活用하여 産後病을 豫防하고 産後 各種疾病에 活用할 수 있다.
5. 補虛湯의 構成藥物은 醫學入門以後, 構成藥物의 用量은 東醫寶鑑以後 現在까지 變化없이 使用되고 있다.

以上の 結果와 같이 補虛湯은 補血作用보다 補氣作用이 우선하며 産後 大補氣血의 目的으로 活用되어 産後病을 豫防하고 産後 各種疾病을 다스릴 수 있는 方劑로 앞으로 더 많은 活用이 기대된다.

## 參 考 文 獻

1. 李挺 :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p.355, 1977.
2. 宋炳基 : 韓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pp.556-557, 1984.
3.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447, 1979.
4. 黃道淵 : 醫宗損益, 서울, 醫藥社, pp.682-687, 1976.
5. 朱丹溪 :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成文化社, pp.749-763, 1982.
6. 虞天民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377, 1986.
7. 黃發 : 金匱鉤玄卷三(정전사고전서), 香港, 臺灣상무인서관, pp.739-740, 1990.
8. 林珮琴 :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p.552, 1980.
9. 陳夢雷外 : 醫部全錄(卷25), 中國通俗圖書刊行社, p.377, 1986.
10. 姜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p.262-263, 1975.
11. 黃道淵 : 證脈 方藥合編, 서울, 杏林出版社, pp.84-89, 94-105, 127-129, 215-216, 255-256, 1987.
12. 南采祐 : 清囊訣, 서울, 癸丑文化社, p.605, 1913.
13. 朴炳昆 : 漢方臨床四十年, 서울, 大光文化社, p.569, 1971.
14. 李正來 : 東洋醫學原理(전), 서울, 온누리出版社, p.569, 1971.
15. 趙憲泳 : 東洋醫學叢書五種, 서울, 成輔社, pp.135-136, 1978.
16. 朴炳烈 : 標準漢方婦人科學, 서울, 醫藥社, p.371, 1979.
17. 金定濟 : 診療要鑑下,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487, 1988.



18. 李載熙 : 圖設漢方診療要方, 서울, 醫學研究社, p.344, 1983.
19. 宋炳基 : 方證新編, 서울, 東園出版社, pp.273-274, 1983.
20. 尹吉榮 : 東醫臨床方劑學, 서울, 明寶出版社, p.547, 1985.
21. 裴元植 : 最新漢方臨床學, 서울, 南山堂 p.819, 1986.
22. 申載鏞 : 方藥合編解說, 서울, 成輔社, p.89, 1988.
23. 趙世衡 : 東醫新臨床處方集, 서울, 考試研究院, p.74, 1988.
24. 孟華燮 : 方藥指針講義抄錄, 圓光大韓醫科大學 大學院, pp.579-582, 1989.
25. 李正來 : 太韓醫學全集 卷三, 서울, 第一文化社,
26. 申卿熙 : 蒼濟證方, 서울, 三藏苑, pp.633-634, 1990.
27. 葉天士 : 葉天士女科, 서울, 大成文化社, p.305, 1984.
28. 廣東中醫學院 : 中醫草藥學, pp.74-74, 543-544, 594-585, 597-598, 600-601, 602-603, 611-612, 1986.
29. 上海中醫學院 : 中草藥學, 商務印書館, pp.42-44, 378-379, 350-352, 511-515, 517-521, 564-566, 1986.
30. 金晟壽 : 標準本草學, 서울, 進明出版社, pp.217-220, 58-62, 84-89, 108-113, 298-303, 361-366, 367-370, 448-452, 1975.
31. 申吉求 : 申氏本草學各論, 서울, 修文社, pp.1-16, 80-84, 576-578, 600-603, 1973.
32. 江蘇新中醫學院 : 中藥大辭典, 서울, 成輔社, pp.1596-1599, 1982.
33. 李尙仁外 : 漢藥臨床應用, 서울, 成輔社 p.353, 1982.